

# 오정희 소설 「옛우물」에 나타난 애도의 형식 연구

김혜영\*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애도를 위한 서사 배치
- III. 애도: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
- IV. 애도의 메카니즘: 존재, 죽음, 시간에 대한 인식
- V.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오정희 「옛우물」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소설에 나타난 서사 배치, 공간 이동 과정과 심리적 변모, 존재와 죽음, 시간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죽음과 대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면서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수용해 나가고 있었다. 「옛우물」은 사랑하는 이에게 쏟았던 리비도를 소진한다는 점에서 리비도의 회수를 말하는 프로이트식 애도에 맞지 않으며, 자아 상실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 비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울증적 경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옛우물」의 애도가 우울증적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존재, 죽음,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죽음을 하나의 세계와의 단절이면서 또 다른 세계로의 이행으로 바라보는 지속의 시간관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능하게 하여 죽은 이를 옛우물 속에 사는 금빛 잉어와 같은 존재로 변이시킨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의 애도가 단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은 이가 영원한 시간 속에 살게 하는 상상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죽음, 서사 배치, 애도 과정, 애도 메카니즘, 지속적 시간

## 1. 들어가며

오정희는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완구점 여인」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해 온 작가이다. 오정희 소설의 경우, 대다수가 여성의 일상적인 삶을 배경으로, 여성의 성장, 욕망,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거나 감각, 정서, 시간과 공간, 탄생과 죽음 등과 같은 실존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교적 단조로운 일상을 조명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오정희 소설에 대한 평가는 다채로운데, 그 이유를 오정희 소설의 서사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오정희 소설은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거나 사건의 추이를 조명하기보다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면서 사건을 나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단편적인 사건들은 무엇과 연결되는가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 하나의 작품이 성장, 여성성, 감각, 시공간적 접근, 죽음의식 등 여러 주제로 연구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교차하는 중층적인 논의의 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옛우물」 역시 이러한 해석의 다층성 속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옛우물」은 1994년 발표된 소설로 1989년에 나온 「파로호」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다. 「과로호」 이후 5년이라는 시간적 단절 이후에 나온 소설이면서, 이 소설 이후 『새』 외에 뚜렷한 소설 창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소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이전 소설의 변주이자 정착지점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소설에 대해서는 여성적 정체성과 모성<sup>1)</sup>, 죽음의식<sup>2)</sup>, 시·공간성<sup>3)</sup>, 서술방식 및 신화적 상상력<sup>4)</sup>, 서정성과 정서<sup>5)</sup>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 남편, 아들과의 일상, 우연히 만난 남편의 낯섦, 미친 여자의 등장, '그'의 죽음, 찻집에서 만난 간질을 앓는 남자, 옛우물 혹은 옛우물 속 금빛 잉어 이야기, 200년 된 연당집을 허무는 과정, 연당

- 
- 1) 하응백, 「소멸에의 저항과 모성적 열림: 「옛우물」 자세히 읽기」, 『문학과 사회』 1996 가을호/ 오연희, 「오정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옛우물」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집, 1997/ 우찬제, 「‘팅빈 중단’, 그 여성적 낯의 노래」,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김혜순, 「여성적 정체성을 가꾼다는 것」, 『오정희 깊이 읽기』(우찬제 엮음), 문학과지성사, 2007/ 심진경, 「오정희의 「옛우물」 다시 읽기」, 『시학과 언어학』 29호, 시학과언어학회, 2015/ 주지영, 「오정희의 「옛우물」에 나타난 센터 탈주의 계보학: 모성, 여성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정화와 재생의 현자-되기」, 『구보학회』24, 2020
  - 2) 허명숙, 「소설이 죽음을 사유하는 방식-오정희의 「옛우물」, 김훈의 「화장」, 배수아의 「시취」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34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 3) 김미정, 「‘몸의 공간성’에 대한 고찰-오정희 소설 「옛우물」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5, 현대소설학회, 2005/ 양운의, 「여성과 토폴로지-오정희의 「옛우물」, 「저녁의 게임」, 「유년의 뜰」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69, 현대소설학회, 2018/ 강유정, 「오정희 소설의 공간과 욕망의 배치 연구-「옛우물」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69, 우리문학회, 2021
  - 4) 강숙아, 「오정희 소설 「옛우물」의 스토리 배치와 서술방식 연구」, 『한국문예창작』 13권, 2014/ 김정숙, 「「옛우물」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현대문학이론과 비평』 2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 5) 방민화, 「〈옛우물〉에 나타난 서정성 연구」, 『승실어문』 14집 1998/ 김민옥, 「오정희의 「옛우물」에 구현된 연민의 감정」, 『한국문학논총』 85집, 2020

집에 사는 바보라는 존재, 나무에 올라 돌발적인 욕구를 느끼는 장면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 논문에서는 「옛우물」의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 ‘그’의 죽음이 가장 핵심적 사건이라고 보고, 「옛우물」을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죽음은 오정희 소설의 보편적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오정희 소설에서 죽음은 대부분 “아이의 죽음 혹은 아이의 죽임이거나 가족의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때문에 오정희 소설에서 죽음은 주인공의 정신적 외상, 모성적 죄의식, 존재론적 불안감, 황폐한 세계와의 접촉 등의 주제적 변주”<sup>6)</sup>로 나타난다. 죽음을 주제로 오정희 소설을 분석한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옛우물」에 나타난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옛우물」의 경우, 일상의 질서가 매우 비중 있고 안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의 죽음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전 소설과 같이 일상을 뒤 흐드는 충격의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우물」에는 죽음, 소멸의 이미지가 소설 전반에 깔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그’가 죽은 이후 몇 년 만에 ‘그’의 죽음과 대면하려는 시도,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죽음 받아들이기 등 애도의 표지들이 분명히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애도 형식으로 접근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애도란 누군가를 상실한 다음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말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애도(슬픔)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

6) 허명숙, 「소설이 죽음을 사유하는 방식-오정희의 「옛우물」, 김훈의 「화장」, 배수아의 「시취」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4집, 2011, p.346

국, 자유, 어떤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애도의 경우, 현실에 잃어버린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우울증은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어 정도로 자기 비하감을 느끼면서 급기야는 자신을 누가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징벌에 대한 망상”을 갖는 현상이라고 규정한다.<sup>7)</sup> 애도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수용하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현실로 복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우울증은 상실된 대상과 자아를 동일시하여 “대상 상실을 자아 상실로 전환”하고, “대상에 대한 원망을 자아에 대한 비난”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sup>8)</sup>

이 논문에서는 애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보고, 오정희의 「옛우물」에 나타난 애도의 과정 및 애도의 메카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자기 상실의 모습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애도와 우울증이 혼종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애도 작업을 살펴보는 일은 새로운 애도의 형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소설에 나타난 애도의 형식을 살펴보기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애도의 서사 구조와 죽음을 수용하는 애도의 과정을 다루고, 4장에서는 이 소설이 제시하는 존재, 죽

---

7) S. Freud,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2, 14. The Hogarth Press & Institute of Psycho-Analysis(윤희기 옮김,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pp.248-249. 이 책에서는 애도를 슬픔으로 번역하였으나 논문의 편의상 애도로 대체한다.

8) S. Freud, 위의 책, p.255, p.257

음, 시간관 분석을 통해 애도의 메카니즘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소설의 애도 형식을 애도의 새로운 지점을 보여주는 소설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본다.

## II. 애도를 위한 서사 배치

「옛우물」은 45세의 생일을 맞는 ‘나’가 자신의 일상과 과거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이 소설에서는 사소한 일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자유연상기법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서술로 인해, 사건들이 일정한 인과관계 없이 나열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비교해 볼 때, ‘그’와 ‘나’의 관계는 암시적이고 모호하게 언급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일상적 삶에서 ‘그’의 존재가 억압되는 양상이 서사 배치의 층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소설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건을 서사 진행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 ㉠ 45세가 되는 생일날, 나는 가족들이 나간 후, ‘그’에게 전화를 건다.
- ㉡ ‘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와 같이 갔던 찻집에 간다.
- ㉢ 찻집에서 ‘그’와 함께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 ㉣ ‘그’가 죽은 후 나는 귀울음을 앓는다.
- ㉤ ‘그’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 내 안에 무엇인가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 ㉥ ‘나’를 찾아온 ‘그와’ 함께 퇴락한 절을 방문했던 일을 회상한다.
- ㉦ ‘나’는 나무에 올라 자신이 흰빛으로 부서지는 체험을 한다.
- ㉧ ‘나’는 별과 꽃이 난만한 밤에 ‘그’가 죽었다고 말한다.

㉠, ㉡, ㉢, ㉣은 현재 시점의 사건들이며, ㉤, ㉥은 ‘그’가 살아 있을 때의 기억에 해당하고, ㉦과 ㉧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 해당한다. ‘그’와 관련된 서사에서 특징적인 점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과 ㉧을 중심으로, 그 바깥에 ‘그’가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담은 ㉤, ㉥을 배치하고, 표면에 ㉠, ㉡, ㉢, ㉣의 현재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그’와 관련된 서사의 중심에 놓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 ㉠, ㉡ 【 ㉤ 【 ㉦, ㉧ 】 ㉥ 】 ㉢, ㉣ 】

이러한 서사 배치는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을 품고 있는 모습, ‘나’의 삶이 ‘그’의 죽음과 삶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나’가 사우나에서 발견한 러시아 인형의 중층 이미지와 연관시킬 수 있는데, 늙은 여성의 몸 속에 자신이 살아온 수많은 여성들이 중층 이미지로 들어 있듯이 ‘나’의 현재 속에는 ‘그’와 보낸 과거와 ‘그’의 죽음이 중층적 이미지로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서사 배치이다. ‘그’의 삶은 ‘그’의 죽음을 품고 있고, ‘나’는 ‘그’를 품고 있는 서사적 배치는 이 소설에서 다루는 삶과 죽음의 중첩성이라는 시각은 물론, ‘나’의 삶에서 ‘그’의 존재가 차지하는 가치와 비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표는 ‘그’가 죽은 이후 ‘나’가 겪은 내적, 외적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	㉡	㉢	㉣	㉤	㉥	㉦	㉧
자신의 죽음을 느낌	‘그’에게 전화함	찾집을 방문함	중첩이미지를 경험함	연당집을 관찰함	숲에서 회열을 느낌	‘그’의 죽음을 선언함	

㉠은 ‘그’의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의 모습이며, ㉡는 ‘그’가 죽

은 이후에도 몇 해 동안 ‘그’에게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는 ‘나’의 행동을 보여준다. 이후 ㉔, ㉕, ㉖, ㉗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겪은 다음, ㉘에 이르러 ‘나’는 비로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㉔와 ㉕는 ‘나’가 ‘그’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단계라고 한다면, ㉘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해당된다. 이 소설은 ㉔, ㉕와 ㉘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를 뚜렷하게 드러내어, 애도의 서사 배치라는 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㉔, ㉕, ㉖, ㉗는 ‘그’의 죽음과 대면하고 죽음을 수용하는 애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죽은 후 처음으로 ‘그’와 함께 머물렀던 찻집을 방문하는 ㉔는 죽은 ‘그’와의 관계에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며, ㉔에서 ㉗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㉔와 ㉕를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나’가 ‘그’의 죽음 이후 몇 해 동안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나’가 ‘그’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는 “마른빨래를 개키면서 건성으로 눈길을 주었던 신문의 부고란”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한다. ‘그’의 죽음을 확인한 이후, ‘나’는 거울 속 조각조각 균열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음과 함께 자기 안의 무엇인가가 죽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나’는 바로 “빨래를 마저 개키고 낮에 절여 둔 배추를 버무리는” 일상의 활동을 유지해 나간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슬픔이 일상의 규범으로 억압된 채, 언어로 표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현되지 못한 슬픔은 ‘자신의 균열’, ‘자신 안의 누군가의 죽음’, ‘귀울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애도를 “상실한 대상을 현재의 언어 또는 타자의 언어로 설명하고 상징화하는 작업”이

며, “자신의 상실을 언어적 연쇄로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애도의 기능장애”로 부른다는 점<sup>9)</sup>을 고려하면, ‘나’는 아직 ‘그’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가 눈물을 흘리거나 ‘그’의 죽음을 선언하는 장면을 배치하는 것에서도 정서 표현과 언표화 작업이 애도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옛우물」에서는 서사 배치의 측면에서 ‘그’의 죽음을 중심에 두고,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을 감싸고 있고, 다시 ‘나’가 ‘그’의 삶과 죽음을 모두 감싸는 구조를 취하여 ‘나’의 삶에 ‘그’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한 소설 앞부분의 ‘나’와 ‘그’의 죽음을 선언하는 뒷부분의 ‘나’ 사이의 태도 차이를 뚜렷하게 함으로써, 이 소설이 ‘그’의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에 관한 소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3장에서는 ‘나’가 ‘그’의 죽음을 수용하는 애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본다.

### III. 애도 :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

「옛우물」에서 ‘나’가 ‘그’의 죽음을 수용하는 애도의 과정은 공간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소설에서 공간은 특정한 질서와 관습을 축적하고 있는 장소로서, 공간마다 서로 다른 시간과 의식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그’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찻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찻집을 방문하기 전, 시장 근처 다릿목에서 남편과 미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다릿목 역시

9) 백상현, 『라캉의 루브르』, 위고, 2016. p.58

찾집에 들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시장 근처의 다릿목, ‘그’의 죽음과 대면하는 계기를 여는 찾집,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사우나, 2년 전 3개월을 살았지만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인 예성아파트, 예성아파트와 현재 ‘나’가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사이의 공간인 숲 등을 중심으로, 각 공간에서 어떻게 애도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1. 시장 근처의 다릿목 : 습관적 행로 벗어나기

찾집은 ‘그’와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라는 점에서, 그 찾집에 간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대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나’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시장 근처에 찾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죽은 이후 한 번도 찾집을 찾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찾집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는 우연히 다릿목에서 남편을 보게 된 것과 미친 여자가 정체된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본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나’는 시장 근처에 있는 다릿목에서 우연히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남편의 차를 보게 된다. 다릿목의 정체로 인해 남편의 모습을 꽤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지만, 남편의 모습에 낯섦을 느끼고 피해 버린다. 익숙한 것에 대한 이질감은 오정희 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감각이다. 김화영은 “타자에 대한 낯섦에서 솟아오른 질문은 거울에 반사되듯 ‘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의 의문을 일으킨다”고 말한다.<sup>10)</sup> 그렇다면 왜 ‘나’는 남편에서 낯섦을 느끼는 것일

10) 김화영,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학지성사, 2007. p.340

까. ‘나’가 남편에서 낯섬을 느끼는 이유를 시장 근처라는 공간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시장 근처는 일주일에 두 번 시장에 가는 일과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나’만의 공간이자 이 공간 가까이에 ‘그’와 갔던 찻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나’의 공간이기도 하다. 남편을 보고 느낀 낯섬이 역으로 그 공간을 ‘그’와 ‘나’의 사적 공간으로 생각한 ‘나’의 무의식을 일깨우게 된다.<sup>11)</sup>

미친 여자는 관습이 부여하는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를 표상한다. 곧 미친 여자는 16년 전쯤 ‘그’의 전화를 받고 젓먹이 아이를 떼어놓은 채, ‘그’에게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지옥에라도 같이 가겠다는 ‘나’의 심정은 ‘그’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친 여자의 등장은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들추어내는 계기가 된다. 남편에 대한 낯선 느낌과 미친 여자와의 만남은 서로 이질적인 사건이지만 두 사건은 ‘나’의 일상에 균열을 내고, ‘나’의 내면 지각을 흔들며, 지층에 묻힌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일깨운다. ‘나’는 남편과의 균열, 미친 여자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응시를 통해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시장에 다녀온 다음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질서를 향해, “집에 들어가서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저녁밥을 지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노라고” ‘그’에게 향하는 마음을 변명하듯 말하는 부분에서 일상의 견고한 구속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은 ‘그’

11) 사물이나 사람이 공간과 맺는 일정한 결속성이 깨졌을 때 느끼는 낯섬은 바보의 상처를 묶어준 자신의 스카프가 막대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에 이질감을 느끼는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의 죽음 이후 처음 ‘그’를 향한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그’와 함께 ‘나’의 한 부분이 죽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죽음은 물론 상실된 자신에 대해서도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다.<sup>12)</sup> 일상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 질서 아래 침묵하고 있었던 ‘나’가 ‘그’와의 추억이 남아 있는 찻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천천히 그 실행에 옮기는 이 장면은 자신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의 죽음과의 직접적 대면을 시도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애도를 위한 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찻집 : ‘그’의 부재 혹은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일상의 견고한 구속을 뚫고 도달하는 찻집은 여러 해 전에 ‘그’와 갔던 곳으로, ‘그’가 죽은 뒤 오랜 우회를 거쳐 비로소 도달한 공간이다. ‘나’는 찻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창 밖에서 안을 응시한다. 찻집 안은 텅 비어있고, 누군가 방금까지 있었던 흔적- 탁자 위 재떨이에서 타고 있는 담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텅 빈 공허, 사라짐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텅 빈 공허, 사라짐의 공포”는 ‘나’가 갖고 있는 죽음의 표상으로서, ‘나’가 ‘그’의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바로 사라짐이라는

12) ‘그’의 죽음 이후 ‘나’ 자신 안의 무엇인가가 죽었다고 할 때 그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김혜순은 ‘그’의 죽음이 ‘나’ 안의 타자-관습화된 관행처럼 ‘나’를 묶어두던, 죽음을 살던 욕망의 총체-를 소멸시키고, ‘나’의 홀로서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김혜순과는 달리 자기 자신 혹은 보다 ‘그’를 사랑한 자신의 죽음으로 해석한다.

김혜순, 「여성적 정체성을 가꾼다는 것」, 『오정희 깊이 읽기』(우찬제 엮음), 문학과 지성사, 2007. p.233

두려움에 직면하고, 텅 빈 공허를 채우는 일에 해당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찻집 안으로 들어간 ‘나’는 ‘그’가 앉은 자리에 앉아 그 옛날의 목소리로 차를 주문한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를 재현하고, 지나간 시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 들리는 낮고 선 목소리” 때문에 과거의 ‘나’를 회복하는 일에 실패한다. “낮고 선 목소리”는 과거를 회복하려는 ‘나’의 시도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보여준다.

찻집에 들어가기 전, 타고 있는 담배에서 “텅 빈 공허, 사라짐”이라는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던 것을 시작으로, 찻집에 앉아 몇몇 사건을 회상하는데, 그 사건들은 대부분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다. 먼저 ‘나’는 ‘그’에게 자신이 겪은 죽음의 느낌을 얘기했던 것을 떠올린다. 찻집 유리창을 통해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다리에서 종종 자살사건이 발생했음을 떠올리고, 어린 시절 대문에 끼워진 흰 봉투를 기억해 낸다. 아무 것도 씹어지지 않은 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 문틈에 끼워진 흰 봉투에서 ‘나’는 죽음이란 “두렵고 낮선 비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에게만 들린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역시 죽음의 소리를 표상한다. ‘그’가 죽고 난 다음 ‘나’는 귀울음을 겪는데, 이 귀울음은 아버지가 들은 죽음의 소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종잡을 수 없이 웅웅대며 끓어올라 뇌속을 파고 드는 고통”스럽던 귀울음은 ‘나’가 죽음에 가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찻집에 들어온 이후 ‘나’는 두 차례 전화를 걸고 와서 뭔가 혼란에 빠진 중년 남자를 관찰하게 되는데, ‘나’의 눈빛에 당혹스러워하는 중년 남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년 남자를 관찰하는 ‘나’의 시선은 매우 냉정하고 집요하다. 당황한 몸짓으로 찻집을 나간 중년 남자는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 이 중년 남자의 간질은 갑작스럽다는 점에서 죽음의 이

미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년남자는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으며, 심한 혼란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에 빠진 ‘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남자의 모습은 ‘그’의 죽음 이후 절망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는 찻집에서 낮설고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속성과 마주하게 된다. 이 소설에는 다양한 죽음의 표상이 제시된다. 이러한 죽음의 표상은 죽음을 필연적이면서 우연한 속성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년남자의 발작은 ‘그’를 상실한 이후, ‘나’가 겪은 고통을 객관화하여 보여준다. 그러한 점에서 찻집은 ‘그’의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의 다양한 속성을 성찰하며,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3. 사우나 : 인생의 중첩성 발견

사우나라는 공간은 일주일에 한 번은 사우나에 간다는 ‘나’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일상의 규칙성을 드러내줌과 동시에 사우나에서 발견하는 중첩 이미지가 옛우물의 회상이 연결되어 애도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낸다. 먼저 ‘나’는 사우나의 쭉뺨탕에서 입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떠올린다. 삶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에는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중첩 이미지는 이후 여성의 몸 속에 자신이 겪어온 다양한 시간이 중첩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늙은 여자의 속에는 “보다 덜 늙은 여자, 늙어 가는 여자, 젊은 여자, 파과기의 소녀, 이윽고 누군가, 무엇인가를 눈 띄워 주기를 기다리는 씨앗으로, 열매의 비밀로 조그맣게 존재하는 어린 여자아이”와 같은 많은 여자들이 들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는 과거 시간들이 “똑같은 모양의 인형들이 크기의 차례대로 겹겹이 들어있는” 러시아 인형과 같이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이를 ‘나’는 “인생의 중첩된 이미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 부분은 여성의 몸을 상이한 시간의 총체, 서로 다른 시간이 복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면서 상이한 시간들 사이의 유사성- 탄생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과 같은 삶의 형식이 “똑같은 모양의 인형”과 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읽을 수 있다.<sup>13)</sup>

사우나에서 돌아온 ‘나’는 옛우물에 두레박을 빠뜨려 절망적으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되고, 옛우물과 관련된 사건- 옛우물에 빠져 죽은 친구 정옥과 정옥이 죽자마자 옛우물을 메워버려 죽음의 흔적을 지워버린 과거 사건을 회상하게 된다. 이는 과거 옛우물을 막아서 죽음의 흔적을 지운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일상의 질서로 ‘그’의 죽음을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다. 동시에 옛우물은 잊고 있었던 증조할머니의 옛우물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든다. 어린 시절 ‘나’는 “옛우물에는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 천 년이 지나면 이무기가 되고 또 천 년이 지나면 뇌성벽력 치는 밤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지”라는 옛우물에 얽힌 이야기에 매혹되었지만, 결혼 이후 잉어가 더러운

13) 이 소설에는 막 태어난 막내 동생이 형이나 누나가 입었던 배넛저고리를 물려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는 누구나 배넛저고리로 상징되는 하나의 세계를 통과한다는 것, 배넛저고리라는 형식이 만드는 관습이 이 세계를 통과하는 삶을 서로 비슷한 삶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물속에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금빛 잉어의 존재를 잊은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옛우물 이야기는 합리적이고 규율화된 질서 속에서 잊고 있었던 신화적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

사우나 장면이 중첩된 이미지를 통해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옛우물과 관련된 회상은 삶 속에서 반복되는 상실의 경험과 소멸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지속적 생성의 시간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이행,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이행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옛우물 속에 살고 있는 금빛 잉어의 이야기는 수 천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지속을 보여줌과 동시에 금빛 잉어의 소멸이 이무기의 생성으로 이어지는 변이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죽음을 소멸이 아닌 새로운 생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 4. 예성아파트와 연당집 : 사라지는 것과 함께 머물기

예성아파트는 2년 전, '나'의 가족이 3개월을 살았던 공간으로, 세를 준 젊은 부부가 나간 다음, '나'는 이 빈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텅 비어 있지만 이전에 무엇인가 존재했었던 흔적이 자리잡고 있는 예성아파트라는 공간은 '그'의 죽음 이후 '나'의 내면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예성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200년 된 연당집과 무너진 건물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찾는 몸짓을 하는 바보를 지켜본다. 이 바보의 모습은 '그'를 상실한 '나'의 모습의 투사이면서, "익숙한 세계의 소멸을 영문도 모르고 겪게 마련인 인간 존재의 서글픈

운명<sup>14)</sup>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매일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연당집을 지켜보는 일은 죽어 가는 존재, ‘그’에 대한 응시로 연결될 수 있다. ‘나’는 직접 지켜볼 수 없었던 ‘그’의 죽음을, 사라져가는 연당집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추체 혐한다. 나아가 연당집은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놓여 있는 한계, 소멸의 운명을 지닌 존재의 한계를 보여준다. 예성아파트가 ‘그’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공허한 내면을 상징한다면, 연당집은 사라져간 ‘그’의 존재 및 모든 존재의 운명을 표상한다. 그런 점에서 예성아파트에서 연당집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일종의 죽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제의에 참여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의의 시간을 통해 ‘나’는 결과로 통보된 ‘그’의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예성 아파트에서 한숨 자고 난 ‘나’는 붉은 노을을 보면서 16년 전쯤, ‘그’와 만나기 위해 첫뒸던 아이를 떼어놓고 달려나갔던 때를 회상하게 된다. ‘그’와 함께 천년 퇴락한 절을 방문하게 되는데, 절에 핀 영산홍을 보면서 ‘그’가 영산홍 붉은빛은 지옥까지 간다고 말했던 것과 ‘그’와 함께라면 지옥까지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 낸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머문 계곡의 더러움, 오소리의 간을 생으로 먹는 사람들, 음식점 주인 여자의 의심스러운 눈길, 붉은 저녁노을, 부모를 찾는 아이들의 울음, 화장실에서 본 자신의 모습 등이 중첩되어 그에 대한 사랑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와 좀더 같이 있고 싶어하면서도, 서둘러 일상에 귀환하게 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sup>15)</sup>

14) 황종연,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p.80

15) 김치수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불륜이나 모순으로

젓먹이 아들을 떼어 놓고 ‘그’를 만나러 간 사건을 회상한 ‘나’는 낮잠을 지는 동안 연당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이 소설에서는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수치로 만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저녁노을, 무너진 연당집 이미지와 중첩시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연당집이 사라져가는 과정은 애착의 대상이 사라지는 상황- ‘나’에게는 ‘그’가 사라진 상황을 재현하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자각에 이르게 하여, ‘그’의 죽음을 수용하게 만든다.

### 5. 숲길 : ‘그는 죽었다’는 선언

이 소설에서 숲은 예성아파트와 ‘나’가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연당집이 무너진 후 예성아파트를 나온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숲속에서 현자가 된 느낌을 갖게 된다. 숲에 깃든 어둠을 응시하는 것은 하루의 끝인 밤, 삶의 끝인 죽음에 대한 응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숲은 죽음, 저승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나’가 숲에 들어 오기 직전 ‘그’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의 전화번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숲은 ‘그’가 전화를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을 인정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죽음의 공간일 수 있다.

숲속에 있는 오동나무에 올라간 ‘나’는 미끄러지지 않게 나무를 껴안

---

그러지지 않고 존재의 심연에서 솟아나는 갈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은 이 작가가 인간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정체를 파악하는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김치수, 『외출과 귀환의 변증법』,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p.246

으면서 “돌발적이고 불합리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불합리하고 돌발적인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오고, 나는 산산이 해체되어 흰빛의 다발로 흩어지는 듯한 짧은 희열”을 느낀다.<sup>16)</sup> 찻집에서 만난 중년 남자의 비명이 자신의 고통을 대리 표상하였다면, 오동나무 위 ‘나’의 “억눌린 비명”은 자신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과 욕망의 직접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6년 전쯤 현실적인 여건으로 포기해야 했던 욕망의 소리이자 ‘그’의 죽음 이후 자신의 얼굴이 깨진 것을 보면서도 지르지 못했던 고통의 소리가기도 하다.

어둠 속에서 ‘나’와 결합하는 오동나무는 죽음의 세계 속에 있는 ‘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동나무에 올라가 느낀 희열은 어둠, 죽음의 세계에 있는 ‘그’와의 합일에서 오는 기쁨에 해당하며, ‘나’의 희열을 “산산이 해체되어 흰빛의 다발로 흩어지는 듯”하다고 표현하여<sup>17)</sup> ‘그’와의 결합이 ‘나’의 죽음으로 이어짐을 암시한다. 이 장면 이후 ‘그’의 죽음을 선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혹은 ‘그’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희열과 해체가 ‘그’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죽음을 상징화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나’는 “별과 꽃이 난만한 밤에 ‘그’는 죽었다”고 ‘그’의 죽음을 선언한다.<sup>18)</sup> 그런데 ‘나’가 신문 부고란에서 ‘그’의 죽음을 알았다는 점을

16) ‘나’가 억눌린 비명과 짧은 희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박혜경은 인간 삶의 존재론적 비의의 원천인 그 생명력의 신비스러운 심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작중 화자의 욕망을 보여준다고 본다.

박혜경, 「불모의 삶을 감싸안는 비의적 문체의 힘- 『바람의 뉘』 이후의 오정희 소설들」, 『작가세계』, p.121

17) 이 소설에서 흰색은 죽음 이미지를 담고 있다. 어릴 적 회상 속에 등장하는 죽음을 전달하는 흰 봉투가 그러하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신의 아들은 아버지가 흰 새가 되어 날아갔다고 표현하는 부분도 그러하다.

고려하면, 지역이나 시간대가 다른 ‘나’가 ‘그’가 죽은 밤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가 말하는 ‘그’의 죽음은 실제 ‘그’가 죽은 시점을 의미하기보다는 ‘나’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 지금, 별과 꽃이 난만한 밤인 지금, 비로소 ‘그’도 죽었다는 선언으로 읽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의 죽음을 ‘어떻게’, ‘왜’가 아닌 ‘언제’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의 죽음을 ”별과 꽃, 밤“이라는 재생의 존재들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그’의 죽음은 거대한 자연과 우주의 변화 그 흐름의 일부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그’의 죽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나’는 증조할머니가 말해 준 옛 우물 이야기의 앞부분을 기억해냄으로써 ‘그’의 죽음은 신화적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의 죽음을 선언한 ‘나’는 증조할머니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이 망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부분은 “옛말 어느 각시가 옛우물에 금비녀를 빠뜨렸는데 그 각시는 상심해서 죽고 금비녀는 금빛 잉어로 변해.....”이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에 대한 선언과 금비녀를 잃어버린 각시 이야기를 맞물려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소설에서 옛우물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공간이자 변이의 공간이다. 이 소설에서는 금비녀를 사랑한 각시의 모습과 ‘그’를 사랑한 ‘나’의 모습을 병치시킴으로써 ‘그’의 존재 변이를 암시하고 있다. ‘그’의 지속과 변이를 상상하는 장소가 숲이라는 점에서, 숲은 새로운 세계로

18) 이러한 선언은 오스틴이 말하는 발화수반행위에 해당한다. 발화수반행위란 통보, 명령, 경고, 보증과 같은 어떤 관습적 힘을 갖는 발화를 수행한다. 이렇게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죽은 존재가 된다.

J.I.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Harvard Univ. Press, 1965. (『말과 행위』, 김영진 옮김, 서광사, 1992. p.139)

의 이행,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턱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IV. 애도의 메카니즘 : 존재, 죽음, 시간에 대한 시각

지금까지 「옛우물」에서 ‘나’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애도 과정을 살펴보았다. 애도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소설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죽음과 대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면서,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다는 인식 전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그’의 죽음을 수용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애도 과정 속에는 애도를 가능하게 하는 메카니즘- 죽음 및 시간, 존재에 대한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나’는 죽음을 “두렵고 낯선 비밀”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이 소설의 애도 메카니즘이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작업이면서 비밀스러운 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옛우물」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의 갑작스러운 사라짐과 관련된다. 이 소설이 전제하는 존재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 세상의 존재는 모두 시간이라는 그물을 피할 수 없고,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한 소멸의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이라는 죽음의 속성은 죽음을 두려운 대상으로 만든다. ‘그’와의 추억이 남아 있는 찻집을 방문하기 위해 일상의 허락을 받거나 찻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찻집 안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 등은 이 소설이 소멸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소멸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애도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죽음의 “두려움”이 소멸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면, 죽음을 “낯선 비밀”로 바라보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시간의 비밀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죽음을 ‘낯선 비밀’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문틈에 끼워진 흰색 봉투 이미지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음은 흰색 봉투에 담겨서 전달되지만, 열어보는 것이 금기였기 때문에 흰색 봉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밀이라는 표상을 갖게 된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막내 동생이 태어난 후, 할머니가 “뒤란으로 돌아가 피 묻은 짚과 태”를 태우는 모습을 본 ‘나’가 “우리가 떠나온 세계는 시꺼먼 연기와 검댕이로 피어올라 할머니가 장독대에 떠놓은 정화수 흰 대접, 옛날의 우물물에 날아 앉고 우리는 영원한 암호, 비밀일 수밖에 없는 한 세계와 결별”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연결해 주는 영속하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태나 자궁의 세계와 같이, 우리가 한때 머물렀다고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던 나뭇가지 부러뜨리는 소리의 세계와 같이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처럼 출생 이전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기억하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부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세계이다. 태와 짚을 태운 검댕이가 다시 옛우물의 정화수에 내려앉은 모습은 자궁에서 출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죽음 이후로 나아가는 이행이 존재한다는 것, 이러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이며 장구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가 ‘그’의 죽음 소식을 접한 후, ‘그’가 ‘왜,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가 언제 죽었는가를 통해 ‘그’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도 이러한 시간관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속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진다. 증조할머니가 ‘나’에게 들려주는 옛우물 이야기는 옛우물에 사는 금빛 잉어가 용이 되어 하늘을 날아가는 신화적 세계와 몇천 년에 이르는 장구하고 영속적인 시간을 담고 있다. 옛우물 이야기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그’를 저승에 빠뜨린 ‘나’의 슬픔과 고통은 금비너를 잃어버린 각시와 병치되면서 ‘그’를 옛우물 속 금빛 잉어와 같이 변이하는 존재로 만든다. 아버지의 초혼제가 ‘나’의 아들이 할아버지가 흰새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서 완성되듯, ‘그’의 죽음에 대한 ‘나’의 애도는 ‘그’를 새로운 존재로 재생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소설에서 옛우물은 저승과 같은 죽음의 공간이거나 과거 시간의 총체, 상실로 인해 만들어진 마음 속 빈 공간 등 의미적 변주를 보이지만,<sup>19)</sup> 핵심적인 것은 우물이라는 원형적 상징에 기대어 죽은 이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새로운 이행과 연속의 시간을 살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 소설의 애도 형식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보여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리비도의 소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프로이트가 제시한 애도나 우울증의 범주로 포괄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러한 지속적 시간과 관련된다고 볼

19) 옛우물에 대해 황중연은 “자기 내부에 자리잡은 생명을 길러내 생명의 유장한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그녀 자신의 일회적 존재의 운명을 넘어서는 여성의 비의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본다. 심진경은 ‘나’가 가족으로 상징되는 관습적 질서의 미덕에 깊이 공감한 후, 자발적으로 덮어버린 세계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의 근원적 상실감을 대리 보상해주는 여성 선사적 서사의 원천이라고 본다. 방민화는 모성과 생생력이 응결된 재생의 공간으로 본다.

황중연, 앞의 책, p.81/ 심진경, 앞의 논문, p.172/ 방민화, 앞의 논문, p.378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슬픔을 그린다는 점에서는 애도 작업에 해당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했던 리비도를 소진하는 모습을 보면 우울증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옛우물」의 ‘나’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객관화하고, 지속하는 시간 속에 ‘그’의 죽음을 위치시키면서, ‘그’의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자기 상실의 자리에 죽은 이를 내면화하여 자기 비난으로 나아가는 우울증적 경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해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슬픔에 대한 응시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실존에 대한 관심, 죽음 이후 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 시간관 등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리비도의 회수 혹은 소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 V. 나가며

「옛우물」은 남편, 아들이 함께 하는 일상의 서사와 자신이 사랑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서사가 공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일상의 서사를 추동하는 힘은 “친숙하고 익숙한 습관”과 질서 있게 놓인 사물들이다. 사물들의 질서와 습관은 ‘왜 이것인가, 왜 저것일 수 없는가’라는 고민과 회의 없이 매일 주어진 것들을 수용하게 만든다. 성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결혼 생활과 출산과 양육으로 이루어진 ‘나’의 일상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합법적 토대를 지니고 있다. 반면, ‘그’는 일상의 이면에 존재하면서 일상적 생활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나’가 지옥까지 같이 가겠다고 결심할 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이 소설은 사랑하는 ‘그’가 죽었지만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몇 년의 시간을 보내던 ‘나’가 ‘그’의 흔적을 대면한 이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의 죽음 이후 처음 방문하는 찻집에서부터 ‘그’의 죽음을 선언하는 숲이라는 문턱 공간까지의 여정을 애도의 과정으로 보고, 이 소설에 나타난 애도를 위한 사건 배치, 공간 이동의 과정과 심리적 변모, 존재와 죽음, 시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이 소설이 보여준 애도는 애도하는 이가 죽은 이에 쏟았던 리비도를 일상으로 다시 옮기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프로이트의 애도 과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죽은 이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다는 점에서는 우울증과 유사하지만, 죽은 이에 대한 비난과 자신에 대한 비난이 착종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우울증적 경향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옛우물」의 애도가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죽은 이에게 쏟았던 리비도를 온전히 죽은 이에게 소진하면서도 우울증적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를 지속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옛우물」은 지속적 시간관에 근거하여 죽은 이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이행의 존재로 바라본다. 죽음을 하나의 세계와의 단절이면서 다른 세계로의 이행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간관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여 죽은 이를 옛우물이라는 생명의 공간 속에서 변이를 거듭하는 존재로 살게 한다.

이 소설은 죽음을 인간의 실존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면서도, 지속적 시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영속하는 생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인다. 오정희의 이전 소설에서 보여준 죽음이 상실감이나 박탈감으로 인한 일탈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면 이 소

설에서는 삶과 공존하는 죽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중국인 거리」와 유사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속하는 시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옛우물이라는 신화적 세계는 바로 그러한 시간관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오정희, 『저녁의 게임 외』, 한국현대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 강유정, 「오정희 소설의 공간과 욕망의 배치 연구 - 「옛우물」을 중심으로」, 『우리문학 연구』69, 우리문학회, 2021, pp.269-296.
- 김미정, 「‘몸의 공간성’에 대한 고찰 - 오정희 소설 〈옛우물〉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pp.125-147
- 김민옥, 「오정희의 「옛우물」에 구현된 연민의 감정」, 『한국문학논총』 85집, 한국어와 문학, 2020. pp.289-320
- 김정숙, 「「옛우물」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현대문학이론과 비평』 26집, 한국현대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pp.183-212
- 김치수, 「외출과 귀환의 변증법」,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pp.239-255
- 김화영,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pp.332-375.
- 김혜순, 「여성적 정체성을 가꾼다는 것」, 『오정희 깊이 읽기』(우찬제 엮음), 문학과지성사, 2007. pp.216-238
- 박혜경, 「불모의 삶을 감싸안은 비의적 문체의 힘 - 「바람의 녀」 이후의 오정희 소설 들」, 『작가세계』, 세계사, 1995년 여름. p. 121
- 방민화, 「〈옛우물〉에 나타난 서정성 연구」, 『승실어문』 14집, 1998..pp.367-381
- 백상현, 『라캉의 루브르』, 위고, 2016. p.58
- 심진경, 「오정희의 「옛우물」 다시 읽기」, 『시학과 언어학』 29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5. pp.155-175
- 양윤의, 「여성과 토폴로지 - 오정희의 「옛우물」, 「저녁의 게임」, 「유년의 뜰」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 6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pp.295-320
- 오연희, 「오정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옛우물」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997. pp.269-285
- 우찬제, 「팅빈 충만, 그 여성적 녀의 노래」,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pp.275-311
- 주지영, 「오정희의 「옛우물」에 나타난 젠더 탈주의 계보학: 모성, 여성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정화와 재현의 현자 - 되기」, 『구보학회』 24, 2020. pp.399-442
- 최정애, 「오정희 소설의 죽음의식 양상 연구」, 경희대석사논문, 2008

- 한경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성과 죽음의 의미」, 서울대석사논문, 2014.
- 허명숙, 「소설이 죽음을 사유하는 방식 - 오정희의 「옛우물」, 김훈의 「화장」, 배수아의 「시취」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pp.341-367
- 하응백, 「소멸에의 저항과 모성적 열림: 「옛우물」 자세히 읽기」, 『문학과 사회』, 1996 가을호. pp.54-68
- 황종연,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pp.59-83
- Austin, J.I..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5. (『말과 행위』, 김영진 옮김, 서광사, 1992. p.139
- Freud, S,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2, 14. The Hogarth Press & Institute of Psycho - Analysis(윤희기 옮김,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pp.247-270

**Abstract**

A Study on the Type of Mourning Implicated in 「Old Well」,  
a Novel Written by O Jeonghi

Kim, Hye-young

This paper deemed 「Old Well」 written by O Jeonghi to have a style of mourning a beloved person and analyzed the arrange of narrative, space movement course and psychological transfiguration, existence and death, and recognition in time implicated in the novel. The unique point in this mourning type implicated in 「Old Well」 was that the character accepted death of a beloved person after a symbolic suggestion by which the character entered the world of death together with the beloved person and put death of beloved person in the stream of continuous stream of time by changing death into the subject about 'When the beloved person died'. The point of view was that severance from the world might be a transition to the other world under the assumption of continuous time that included the period before birth as well as that after death. This point of view about time enabled one to think of the world after death and changed the dead person into a golden-gleam carp which lived in the old well. It also enabled one to finish mourning by which the character accepted the dead person.

**Key Words** : death, mourning process, mourning mechanism, continuous time

김혜영

소속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hybkim@chosun.ac.kr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